

연등법회· 회향· 전통문화마당 (4월 26~27일)



올해 연등회 회향한마당은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장'으로 마무리됐다. 행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석가모니 정근을 하고 있다.



동국에서 진행된 연등법회에서 참가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정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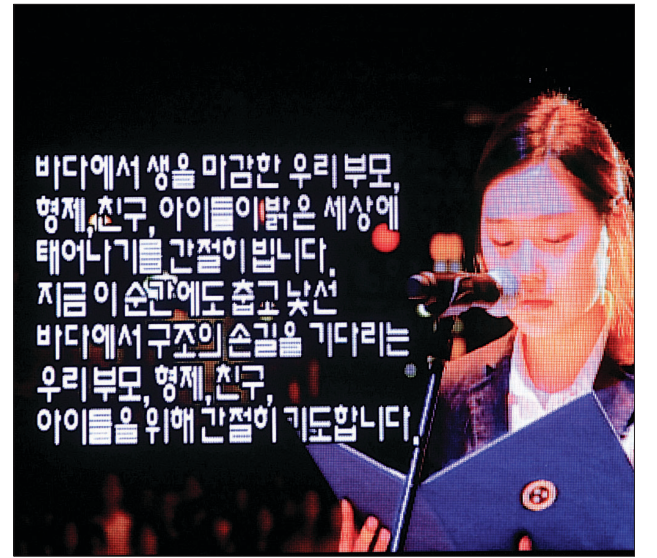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인목 스님의 집전으로 천도재를 진행했다.



기원의 장에 참석한 불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성신여대 박선연 양이 발원문을 낭송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백등을 들고 연등행렬에 동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관불의식 모습.



불교문화마당에 참가한 외국인이 등 만들기체험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관 스님의 달마도서연.



佛記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조희서 주부주지
실주당지부주지
현송원남등
봉암조전운

근혜각호
일승성성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재무국장 승봉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유 연수국장 지담

사부대중일동

고운노인요양원 관장장관장
의성노인복지관 관장장관장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장관장
안동청소문화센터 관장장관장
연화마을관장장관장
안동장애인복지관 관장장관장

◆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 청국장, 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둘째·셋째주 토요일(1박 2일)
신묘장구대다리나월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116) ☎ 054)833-2324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佛記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희주 총기교재사호포원신도회장
실주지 무회무회법교감
태금자 원화원혜덕원지석청광 김백호 외 사부대중 일동
공산산 해평공곡림성월초
월도성우

부설 전북불교회관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서원노인복지관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룸비니 어린이집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연등행렬 (4월 26일)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6일 전국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축제가 열렸다. 서울 종로에서는 동국대에서 열린 연등법회에 이어 10만의 연등이 길을 밝힌 연등행렬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연등축제는 축제일 수 없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참사 중의 참사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슬프기 때문이다. 26일 연등행렬에 앞서 동국대에서 진행된 연등법회도 매년 선보였던 울동과 노래를 행사에서 지웠으며, 연등행렬에서는 화려한 장엄등을 자제하고, '보고 싶다', '아이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 사랑해요'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250여 장의 만장을 준비했다. 또한 행렬에 참가한 불자들은 화려한 연등 대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등을 들었다.

연등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던 대동한마당도 천도의식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하는 국민 기원의 장'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어둠과 차가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우리의 부모님, 형제, 아이들이 다시 밝은 세상에 태어나길 바란다."는 성신여대 박선연 양의 발원문으로 마무리 됐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250여 만장에 쓰여진 '어른들이 미안하다', '보고싶다', '아이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등의 글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아기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장엄물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장엄물



불자들이 손수 만든 연등이 종로의 밤거리를 수 놓았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연등행렬에 참가한 사부대중



오색연등 대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연등.



연등행렬에 동참한 외국인들.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 지 법 만

사부대중 일동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 선운사 성보박물관
백파사상연구소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고창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4교구 승려노후 수행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2558년 부처님오신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선목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www.108sansa.com
TEL:(02) 900-0193 FAX:(02) 900-0195